

조경수목 산책 48



임 경 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농학박사

1. 소나무의 시

소나무는 물질적 쓸모도 그리하지만 시·문장·그림·노래 등 정신분야에 있어서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선다. 소나무가 등장하는 시는 말하자면 하늘의 별처럼 많다. 이곳에서는 불과 몇 편의 한시를 음미해 보고자한다.

다음 시의 제목은 은자를 찾았으나 만나지를 못했노라[심은자불우 尋隱者不遇]라고 되어 있고 지은이는 가도(賈島)이다. 가도(779~842)는 지금의 북경부근에서 출생한 사람이고 몇 번인가 진사시험을 보았으나 낙방을 했다. 그는 승려로 되었으나 한유(韓愈)의 권유로 환속했다.

가도는 『달밤에 중이 문을 민다(僧推月下門)』라는 시구(詩句)를 얻고 민다(추 推)로 할 것인가 아니면 『중이 달밤에 문을 두드린다(僧敲月下門)』로 할 것인가 고민을 했다. 그는 식자를 만나 이 표현을 결정하고자 장안을 돌아다니면서 스승을 찾았다. 시라는 것이 글자 한 자로 느낌이 오락가락하는 것이고 시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한 글자 때문에 가도는 고민을 했다. 그때 가도는 우연히 한유를 만나 이것

을 이야기한바 고(敲)가 당연코 추(推)보다 더 좋다는 권유를 받고 승고월하문(僧敲月下門)으로 했다는 것이다. 이 고사(故事)에서 추고(推敲)라는 말이 생겼으며 시의 좋은 표현을 애써 모색한다는 뜻을 품게 되었다.

이곳에 드는 시는 너무나 유명해서 이곳 필자가 이미 다른 곳에 소개한 바가 있음을 알면서도 거듭 소개한다.

송하문동자
언사채약거
지재차산중
운심부지처

松下問童子
言師採藥去
只在此山中
雲深不知處

풀이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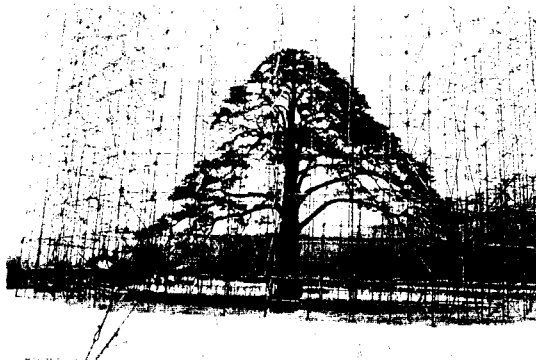
늙은 소나무 아래에서 동자에게 물으니 선생님은 약 캐러 가셨노라고 했다. 지금쯤 저 산 속에 계실 것이오나 구름이 하도 깊어서 계신 곳을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찾아온 은자는 산 속에 가 있는 은자를 만나지 못하고 말았다. 이 얼마나 깨끗하고 도(道)에 이른 경지가 아닌가. 상황이 부럽다.

큰 나무가 서 있는 숲을 지나가면서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라는 멋진 시가 있다. 군데군데를 뽑아 가면서 감상을 해 보기로 한다.

천명독거무도로
산홍간벽분란만
시견송력개십위

天明獨去無道路
山紅澗碧紛爛漫
時見松櫪皆十圍



▲ 정이품송(천연기념물 103호, 1989. 11. 10)

당류적족답간석	當流赤足躡澗石
수성격격풍취의	水聲激激風吹衣
인생여차자가락	人生如此自可樂

새벽(天明)에 혼자서 정처 없이 길을 걸어간다. 산은 꽃으로 붉고(山紅) 개울물은 푸르고(澗碧) 모두 나의 눈을 황홀하게 하는 아름다움(紛爛漫)이나 때로 보이는(時見) 소나무와 상수리나무(松檉)는 크기가 열 아름답이나 되는 큰 것들이다. 개울물이 있어서(當流) 신을 벗고 맨발로(赤足) 개울물 속의 돌(澗石)을 밟고 건너간다. 팔팔(激激) 물소리가 나고 바람은 나의 옷을 나부끼게 한다. 인생은 스스로 이처럼 즐기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 시는 필자가 더 이상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 새벽길 산 속을 산책하면서 우거진 숲 속을 지나가는 한 인생을 생각하면 된다. 이곳에 비자연(非自然)이란 요소는 하나도 없다. 신발을 벗고 개울물을 지나가는 상황은 너무나도 깨끗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서 그곳에는 소나무와 상수리나무의 큰 나무들이 우거져 서 있다. 그는 여기에서 인간의 삶의 희열의 극치를 맛보고 있다. 그곳에는 형용을 벗어나는 대자연의 전개가 있다. 인생을 이처럼 즐겨보라는 권유같은 느낌에는 무언가 우리가 큰 성찰을 해야하지 않을까 한다. 때물은 도시환경과 너무나 큰 대조가 되어서



▲ 정이품송(천연기념물 103호, 1998. 3. 1)

나의 삶이 크게 부끄럽게 느껴진다. 이러한 시는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맛을 불만하다.

거문고 타는 소리를 듣는다는 제목(聽彈琴)의 시가 있다. 이 시로서 소나무의 아취가 어떠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중당(中唐)시대의 시로서 마음에 든다.

영령칠현상	泠泠七絃上
정청송풍한	靜聽松風寒
고조수자애	古調雖自愛
금인다불탄	今人多不彈

풀이는 다음과 같다.

맑고 시원한 소리가 칠현금(七絃琴)에서 흘러 나오는데 조용히 듣고 있노라니 마치 소나무 숲을 지나가는 시원한 바람소리에 닮아 깨끗함을 느끼게 한다. 옛 가락은 스스로 사랑해야 할 것이지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옛 가락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이 시는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다.

일곱 줄의 거문고가 통겨주는 아름다운 음향을 찬 솔바람에 견준 것은 소나무의 위상을 높은 격조로 치켜 올려주고 있다. 솔잎사이를 지나가는 바람소리를 깨끗한 음향으로 듣는 사람은 도를 닦아 깨끗한 자리에 있음을 시사해 주기도 한다.



▲ 처진소나무 운문사(천연기념물 180호, 1992. 6. 25)



▲ 소나무와 바위 내변산(1992. 1. 21)

솔바람의 운치가 세속을 멀리한 옛 가락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해야 할 터인데 요사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하지 못하다는데 문제의 지적이 있다.

무게를 잃어버리고 가볍게 되어 가는 단순함을 잃어버리고 복잡한 세태로 빠져 들어가는 깨끗한 것을 잃어버리고 때묻은 것으로 나아가는 성향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 시에서 소나무의 청아(清雅)한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조용히 솔바람의 한기(寒氣 찬 기운)를 듣는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사람으로서의 될 수 없는 일이다. 무언가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 깊은 곳을 더 파고 내려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가을밤(秋夜)이라는 다음 시는 소나무를 선경(仙境)에 올려놓고 있다. 당시(唐詩)의 하나이다.

회군속추야	懷君屢秋夜
산보영량천	散步詠涼天
산공송자락	山空松子落
유인응미면	幽人應未眠

풀이해 본다.

너(친구)를 생각하는 밤이다. 산보를 하면서 선전한 곳에서 시를 읊고 있다. 산 속은 텅 비어 있어 소리라곤 없는데 솔방울 하나 떨어지는 소리가 이 적막한 공간을 깨고 있다. 세상을 등지

고 유유히 살아가고 있는 자네는 지금 응당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겠지.

서로 정이 통하고 사모하고 있는 처지의 두 사람이다. 멀리 떨어져있어도 마음은 가까운 곳에 있다. 텅 빈 숲 속 산길을 걸어가면서 솔방울 한 개의 떨어지는 소리에 만감이 교차하는 큰 음향을 느끼고 있다. 이것을 연유로 해서 친구의 잠자리를 걱정하는 벗의 태도에 감탄이 간다. 한송이의 솔방울이 이 시 전체를 살리고 있다. 이 세상의 잡다한 것을 멀리한 유인(幽人)이라면 이 시의 대상이 되고도 남음이 될 수 있다. 숲 속을 거닐면서 찬 하늘아래에서 시를 읊는 주인공도 깨끗한 마음의 경지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서 살아있는 존재는 뭐니 해도 한 톨의 솔방울이다.

[참고] 속추야(屬秋夜)의 속(屬)은 「...이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그리고 산보(散步)란 말은 원래 오석산(五石散)이란 극약을 먹고 열을 식히기 위해 한데에 나가 거닐었다는 데에서 온 말이다. 유인(幽人)이란 뜬세상을 버리고 조용히 살아가는 깨끗한 사람을 말함이다.

다음 서강월(西江月)의 시에는 인간과 소나무의 행동교착(行動交錯) 같은 것이 느껴져서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도 있다. 삶의 멋이다.

작야송변취도	昨夜松邊醉倒
문송아취하여	門松我醉何如
지의송동요래부	只疑松動要來扶
이수추송알거	以手推松曰去

풀이해 본다.

어제 저녁 소나무 옆에서 취해 넘어졌는데(醉倒) 그때 소나무에 물어보기를 『나의 취함이 어 떠한고』라고.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은(只疑) 소나무가 나에게로 와서 부축을 하고자 함이 아닌가 했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나는 손으로 소나무를 밀면서 저리 가라고 했노라.

소나무가 도움을 주고자 동작을 한 것처럼 느낀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한 수 더 떠서 소나무를 밀어 제치면서 「필요 없어. 네가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나의 처신을 할 수 있어」하고 기를 내뿜고 있는 취한 사람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다. 소나무도 사람으로 되고 사람도 소나무로 되어서 한바탕 연극을 만드는 장면은 몇 번인가 저작해 볼만하다. 인생이란 이러나 저러나 한바탕의 연극이다. 그 무대 위에 늙은 소

나무를 등장시키고 인간이 오히려 하나의 코미디의 주인공이 된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 우리 주변에도 때로 이러한 광경은 때로 연출되고 있다. 그것을 하나의 웃음거리로만 보아 넘길 것이 아니라 진지한 인생의 한 단편으로도 보고 싶다.

다음 흰 머리칼을 슬퍼하는 노인을 대신해서 읊은 노래(대비백두옹 代悲白頭翁)는 인생무상을 노래한 것으로 가슴속을 푹 찢어주는 맛을 지니고 있다. 좀 긴 시이지만 참아서 읽어주기를 바란다.

먼저 원문을 싣고 다음 풀이를 하도록 한다. 유명한 당시의 하나이다. 끝 부분은 일부 생략해 버렸다.

낙양성동도리화	洛陽城東桃李花
비래비거낙수가	飛來飛去落誰家

낙양성 동쪽 복숭아꽃, 오얏꽃 그 꽃잎이 떨어져서 어느 집에 떨어지나. 이 집 저 집 떨어지는 것 운명의 소관이로구나.

유규아녀석안색	幽閨兒女惜顏色
좌견낙화장탄식	坐見落花長歎息



▲ 강승 정선, 백봉령(1998. 5. 28)



▲ 강승 물진(1995. 4)



▲ 소나무숲, 강원, 준경묘(1995. 1. 19)



▲ 소나무 강원, 수렴계곡(1994. 7. 14)

안방(幽閨)의 젊은 여자아이는 낮색에 마음을 쓰고 조용히 앉아서 떨어져 가는 꽃을 보면서 긴 한숨을 쉰다.

금년화락안색개 今年花落顏色改
 명년화가복수재 明年花開復誰在

금년에 꽃이 지면서 낮색은 그만큼 더 쇠락해 저가고 내년 꽃필 때 누가 살아남아 있겠는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인간의 늙고 죽음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고 있다.

이견송벽최위신 已見松柏摧爲薪
 갱문상진변성해 更聞桑田變成海

이미 보았노라 우람한 크기의 소나무와 잣나무가 꺾이어 뿔감으로 되어버리고 다시 또 들었노라 뽕밭이 변해서 바다로 되었다 함을. 아아 세상 믿을 것 하나 없다.

이 시구(詩句)의 대목은 천년 묵은 소나무도 사람의 손으로 희생이 되어 쉽게 삶의 종말이 오게 된다는 것으로 무상(無常)을 말하고 있다.

고인무복낙성동 古人無復洛城東
 금인환대낙화풍 今人還對落花風

옛사람은 지금 이미 낙양(洛陽)의 동쪽에는 없고 멀리 사라졌으며 지금 사람들은 지난 사람처럼(還) 꽃바람을 받아 지는 꽃을 보고 있다.

연년세세화상사 年年歲歲花相似
 세세연년인부동 歲歲年年人不同

해마다 해마다의 꽃은 서로 닮아 있는데도 해마다 해마다의 사람은 같지 않다.

이것은 사람의 생애가 꽃만도 못하다는 데 견주어 형용함이다. 인간의 늙어 가는 과정을 해마다의 꽃에 비유했다는 것은 흥미 있는 내용이다. 꽃만도 못한 인간이란 인간의 생애라는 뜻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

기언전성홍안자 寄言全盛紅顏子
 응련반사백두옹 應憐半死白頭翁

한말 하고자 하는 것은(寄言) 지금이 한창인 때의 젊은이들아, 반은 죽어가고 있는 흰머리 노인들을 참으로 동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여기에서는 노인이 젊은이들에게 향해서 어떤 구걸 비슷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으나 지금 세대의 풍조로 보아서는 거의 효과 없는 하소연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노인의 서글픔이 함뻍 담겨져 있는데는 젊은 사람들도 무언가 생각을 던져봄직하다.

이 시는 아직 더 계속되지만 여기까지로 끊어둔다. 이 시에 지적된 소나무도 그러하지만 모든 삶이 무상하다는데 초점이 주어지고 있다. 거둬 음미할 만한 시라고 생각된다. **조기승**

(다음호에 계속)